

CGN TV

M A G A Z I N E | Spring 2016_Vol.12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 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 TV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드러내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 줄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요한복음 15:1~8).

나무와 가지는 같은 DNA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우리 DNA가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열매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송구영신예배 설교 중



CONTENTS

Spring 2016_Vol.12

포토에세이 _ 사진작가 신미식

I. 특집

04 다음 세대를 두드리는 모바일 감동 메시지 <KNOCK>

II. 기획 - 2016 예수바보행진

10 마이클 프로스트와의 대화
지역 사회에 선교하는 교회로

12 [기획보도] 세상을 바꾸는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들'에서 희망을 보다

14 CGN DIARY
온누리 - 산마루의 함께 하는 사회 선교

III. 프로그램

15 CGN 인터뷰 _ 배우 겸 성우 성병숙
예조 10년, 엄마 10년

18 선교지의 아침 _ 인도 임권동 선교사
인도 선교의 비전을 나누다

20 CGN 초이스
개국 특집 다큐멘터리 <자이머시 인디아> 외

22 CGN 줌인
이계호 교수의 이유 있는 먹거리 운동

23 CGN 포토스토리 _ 다큐멘터리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 그 이후
"여전히 길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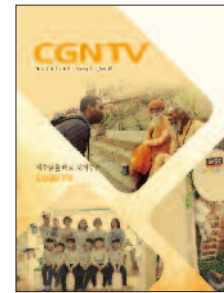
IV. CGN 소식

26 CGN 뉴스 _ 국내, 해외

30 요일별 편성표

32 후원안내

33 에필로그 _ 이남식 장로 (CGNTV 운영위원, 크리스천CEO포럼 회장)
약할 때 강함 되는 방송



COVER STORY

CGNTV는 2016년 선교지 곳곳,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으로
다시 설니다.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6년 4월 3일 (통권 제 12호)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유재건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현아영, 정원이, 어대준,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박민수, 여준원, 스파지오, 이종덕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봄 마중 여행

홍매화를 만나고 돌아왔다.

새봄이 오기 전이면 나만의 의식처럼
늘 남쪽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홍매화를 만나러 간다.

그래야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아
벌써 10년째 봄 마중 여행이다.

상큼한 봄 향기가 심장으로 들어와 생기를 불어넣는다.
비 오는 흐린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화꽃을 찍는다.
아마도 긴 겨울을 보내며 봄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수많은 카메라 세례가 쑥스러운 듯
매화는 고개를 숙이고,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는 수줍은 꽃잎에 신선함을 더한다.

새해 처음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올해도 설레는 첫걸음을 시작한다.

- 경상남도 양주에서

바야흐로 내 손 안의 시대다.
 더욱이 젊은 세대들은 손 안에서
 세상을 보고 교류하고 즐거움을 찾는다.
 그 세상 한 곳, 이 시대 젊은 영혼들을 위해
 '그 마음을 두드릴 인상' 깊은 메시지 하나 남겨두자!
 <KNOCK>의 생각이다.

<KNOCK>는 CGNTV가 제작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는
 짧고 강렬한 감동영상이다.
 웹드라마, 미니휴먼다큐, 세로비디오, 360도 영상 등
 내용에 따른 다양한 장르와 촬영기법을 도입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기독교 모바일 콘텐츠다.



다음 세대를 두드리는 모바일 감동 메시지

KNOCK

웹드라마 '당신의 아버지'에는
 나와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고
 '테이킷 이지'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짧은 시간, 내 손 안의 사각 세상 속에 펼쳐지는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 <KNOCK>.
 마음껏 누리며, 울고 웃고 쉬시길 그리고 나누시길.

장르별 작품과 제작 노트, 방문자들의 소중한 댓글을 통해
 당신의 모바일 속 <KNOCK>와의 만남을 안내한다.

미니 휴먼 다큐

<잃은 양 찾기> (RT 4분 39초 / 1월 17일 업로드)

세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 이요셉 전도사는 소위 불량 청소년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친구다. 그들에게 전화가 오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밥과 간식도 아낌없이 사준다. 아이들이 묻는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다고 말하는 요즘, 이 전도사는 사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한다.

<테이킷 이지> (RT 4분 52초 / 2월 28일 업로드)

최상현 전도사는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남편, 평범한 전도사지만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존재다. "전도사님 같지 않아요. 그냥 아는 아저씨, 아는 삼촌?" 최 전도사는 "이런 생활이 특별할 것은 없다"며 "내 옆에 있는 한두 명 그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주면 된다"고 말한다.



잃은 양 찾기

Production Note

<KNOCK> 미니휴먼다큐는 한 사람의 삶이 주는 감동적인 메시지에 집중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물음을 테마로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그 답을 찾아간다. 가장 큰 연출 포인트가 '연출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다. 그래서 다큐는 짧은 러닝타임에 비해 촬영 기간이 긴 편이다. <잃은 양 찾기>는 촬영만 한 달이 넘게 걸렸고 편집과 후반 작업도 별도로 한 달 넘게 진행됐다.

또 이 작품은 야간 촬영과 비밀 촬영이 불가피한 작품이기도 했다. 주인공의 사역이 주로 늦은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에 많다보니 야간 촬영이 많았고, 그들이 술집에서 만나는 동안 건너편 술집에서 부득불 음료와 닭 꼬치를 시켜놓고 몰래 촬영을 해야 했던 일화도 있었다.

<잃은 양 찾기>는 조회 수가 130만 건을 넘으며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끈 작품이다. 출연했던 아이들은 방송 후 반응이 뜨겁자 영상에 본인을 댓글로 태그하거나 부정적인 댓글에 직접 방어 댓글을 달기도 했다.

미니휴먼다큐는 두 달에 한 편 오픈을 계획하고 있고, 4월 차기작 촬영을 마치고 5월 말 경 새 이야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웹 KNOCK 드라마

<봄의 춤> (RT 7분 18초 / 2월 14일 업로드)

<봄의 춤>은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아, 눈물로 기도해주는 우정, 절망에서 빛을 보게 하는 사랑에 대해 말하며 공감과 감동을 선물한다.

모든 일에 실패한 후, 세상을 등진 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유림. 어느 봄날, 친구가 두고 간 영상메시지를 보며 친구와 함께 했던 오래 전 기억들을 더듬어보게 된다.



<당신의 아버지> (5분 29초 / 1월 20일 업로드)

아버지에게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날. 아들에겐 오랜 아픔으로 각인돼버린 날. 그런데 아들은 병든 아버지의 몸을 닦다 그의 손바닥에서 뜻밖에도 상처를 보게 된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뚝뚝한 아버지가 등장해 나와 우리의 아버지를 돌아보게 한다.

Production Note

<KNOCK> 웹드라마는 유년시절 초코파이와 삶은 달걀이 먹고 싶어 교회에 갔던 이들을 떠올리며 비기독교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초코파이와 삶은 달걀 같은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복음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질문과 느낌표를 던진다. 연출 각본, 편집 등에 많은 공을 들이는 중이다.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인 주제 선정은 회사 내 WDS(Web Drama Study)그룹에서 논의한다. 대중의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 첫 작품이 부정(父情)을 다룬 <당신의 아버지>고, 다음이 우정(友情)을 다룬 <봄의 춤>이었다.

각 작품은 촬영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당신의 아버지> 중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장면은 찾길 통제가 쉽지 않고 위험요소도 있었지만 무사히 촬영을 마쳤고 2일 촬영 하루 80컷을 찍었다. 이는 일반 드라마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분량이다. <봄의 춤>은 기획자인 연출자의 의도가 반영돼 다소 영화적인 색채가 가미되기도 했다. 5분 안팎의 각 작품을 위해 총 30여 명의 스태프가 수고하기도 했다.

작품의 색 보정을 맡았던 한 비기독교인 외주 스태프는 “기독교 드라마라고 해서 지루하고 고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서 감동받았다”고 했다.

세로 KNOCK 비디오

1탄 _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전체화면+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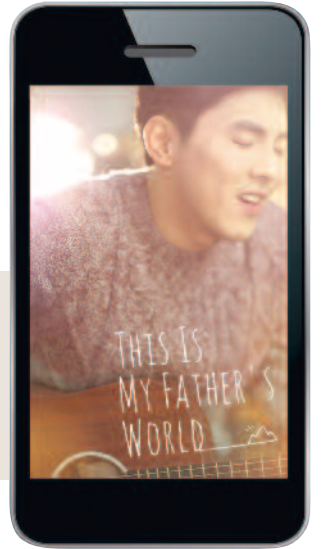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목소리

2탄 _ '서종현'의 <넌 너무 예뻐>

(전체화면+HD)

힙합뮤지션 '미스터탁' 이자 '주청프로젝트선교회' 대표인 서종현 식 재기발랄 힙합 송.

스마트폰을 통한 가로세로 세상이 펼쳐지면서 영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로비디오가 인기다. 다룰 수 있는 아이템도 무궁무진하다. 현재 <KNOCK>는 두 편의 음악 비디오를 오픈했다. 세로비디오는 특성상 긴 콘텐츠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음악은 이에 가장 적합한 형태 중 하나다. 4월 초, 다시 한번 홍이삭의 목소리로 계절에 맞춘 곡 <봄아>를 선보일 예정이다.



PK워십 <예수 거룩한 주>



PK워십과 함께 신나는 댄스. 어린이, 초급, 고급. 360도 영상 속에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 함께 워십을 배워볼 수 있다.

360도 영상은 동영상 재생 도중 시점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형태의 동영상 서비스다. 최근 게임 등 가상현실에 많이 활용되는 콘텐츠로, 시점이 촬영자가 선택한 데로 고정돼 있던 기존 동영상과 달리 키보드 마우스 등으로 내가 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다. 기독교 콘텐츠는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좀 더 폭넓은 층의 관심이 기대된다.

360도 KNOCK 영상

COMING SOON

<교회오빠의 연애 QT> 웹드라마 / 총 5부 시리즈 / 6월 15일 업로드 예정

<교회오빠의 연애 QT>는 웹드라마의 주요 시청 층인 2030여성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다. 교회 다니는 평범한 29세 청년 김요한의 연애담을 표방한 성장드라마. 1부 '심쿵심쿵 교회오빠' 가 오는 6월 15일 첫 공개된다.

노크팬의 진심 댓글

<당신의 아버지> 영상 속 아버지 같은 내 모습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서 조금씩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도 주위 사람이 변한다는 것어요. 쑥스러워 입 밖으로 내뱉지 못 한 말들.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미안해요." 아직도 기도가 서툴러 황설수설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기 쑥스러웠던 단어들이 조금씩 대상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에게 표현하는 방식을 몰라 통명스러웠던 저의 모습이 꼭 영상 속 아버지와 비슷하네요.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영상을 통해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_ 박상임 님



<봄의 춤> 진짜 사랑에 대하여

전 대학 시절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단지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그곳에 나갔습니다. CCC에는 순장, 순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순장이 순원을 보살펴 주고 말씀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공간이 생겨서 동아리 방에 가게 되었는데 동아리 방 한 구석에 있는 기도방에서 제 이름이 자주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저의 순장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 듣다가 몰래 다시 나왔습니다. 말로만 아닌 진짜 사랑을 느꼈고 그때부터 저도 다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_ 조윤성 님

<테이킷 이지> 전도에 용기가!

사실 전도는 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몇 번 전도를 시도해보았지만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저처럼 살기 싫다고 그렇게 못 살 것 같다고요. 그 다음부터 전도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 전도는 제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건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관심이라는 것두요. 전도에 용기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_ 이한선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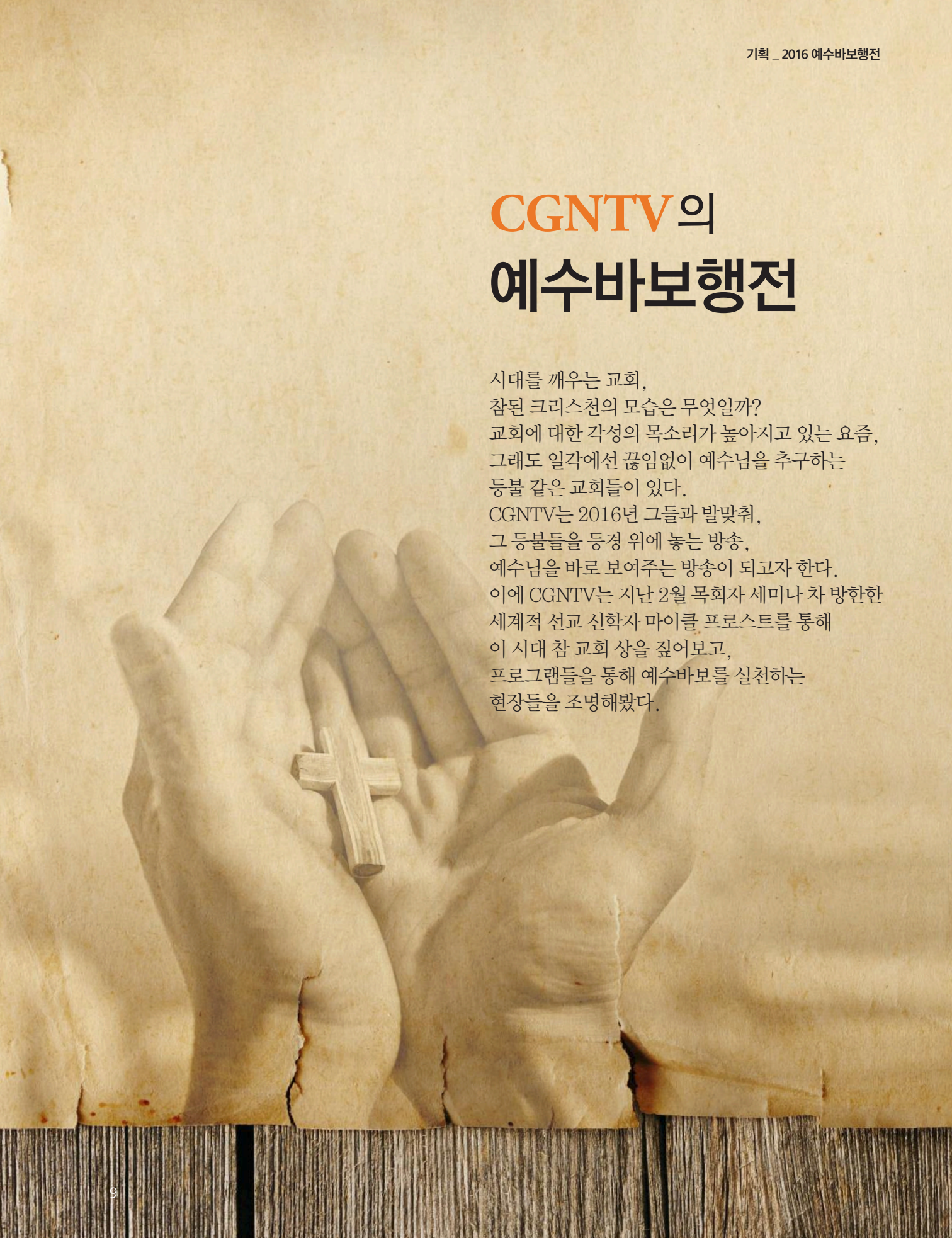


<잃은 양 찾기> 믿음의 용기에 감동

저도 크리스천이지만, 영상 속 전도사님은 제가 겁나서 망설이고 있는 길 앞에서 예수님만 믿고 뚜벅뚜벅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 저도 탈선 가정의 아이들이 더 없이 안타깝고 걱정되지만 상처 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전도사님이 그저 감동이었습니다. 또 전도사님도 세 아이의 아버지시더라고요. 자신의 아이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세상인데 몇 아이를 더 키우고 계신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다시 묵상해봅니다. _ 문경순 님

CGNTV의 예수바보행진

시대를 깨우는 교회,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그래도 일각에선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등불 같은 교회들이 있다.
CGNTV는 2016년 그들과 발맞춰,
그 등불들을 등경 위에 놓는 방송,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이 되고자 한다.
이에 CGNTV는 지난 2월 목회자 세미나 차 방한한
세계적 선교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를 통해
이 시대 참 교회 상을 짚어보고,
프로그램들을 통해 예수바보를 실천하는
현장들을 조명해왔다.



지역 사회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적 선교 신학자이자 저술가, 공동체 지도자인 마이클 프로스트가 지난 2월 1일 목회자 세미나 일정 차 방한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국내 목회자 800여 명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다. 2004년 자신의 저서 '바보 예수'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의 강의는 오롯이 제도와 관례를 타파한 예수의 우직한 행보에 집중하며 명징한 실천적 메시지들로 가득했다. 그가 역설하는 이 시대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CGNTV는 그가 말하는 교회 상의 핵심을 들어봤다.

교회의 변화를 촉구해오셨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교회 스스로 '보냄 받은 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보냄 받은 자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공의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들은 사회에서 동떨어져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리스천끼리만 모이지 말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사회 모든 측면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관점을 갖게 된 영적 계기를 말씀해주신다면.

- 저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잘 몰랐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쫓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예수님을 만난 후 결신하게 되어 강력한 전도자로 섰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전형적으로 끌어모으는 스타일의 교회 리더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장하고 수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지 다른 교회에서 옮겨 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저는 통렬히 각성하고 많은 선교학자들의 글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선교적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 선교적 교회는 기존에 하던 것에 선교적 표현이나 사회적 프로젝트를 더하고 선교적인 얘기를 좀 더 하는 트릭이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

- 호주 몰링칼리지 부총장
'선교연구센터 토크레이' 원장
- '작은 배 큰 바다 선교적 기독교 공동체' 설립자
- 저서 <바보예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세상을 놀라게 하라> 외 다수

아닙니다. 교회의 선천적 목적이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저의 친구 레지 맥닐은 '당신이 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적이라고 해도 결국 돈, 주일 출석 인원, 건물 크기 등을 셉니다. 이제 매트릭스를 옮겨 노숙자가 얼마나 줄었고 가정파탄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을 측정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있다면.

-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완벽한 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 부흥들, 켈틱 부흥, 20세기 초의 오순절 운동 등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 중 미국 플로리다 주 탬파에 '언더그라운드 교회'가 있는데 그곳은 성도들이 선교적인 틀 아래 혁신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각자 재소자, 캠퍼스, 스포츠, 사회봉사 등 그룹별로 다양한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500명 정도인데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대다수 교회들은 핵심 그룹이 따로 있지만 그곳은 모든 성도가 시간을 내어 주변의 누군가를 돕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과 감동으로 사역합니다.

교회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주신다면.

-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보내셨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서울 전역에 파송될 수는 없으니까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나 사업 관계자 혹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 다른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 영향력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문해보고 더불어 그 지역에서 나와 그 일을 협력할 사람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선교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한국인들은 도전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고 열심이 대단합니다. 이제 그 열정을 해외선교뿐만 아니라 본국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 한인 교회들도 한인에게만 보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인 공동체를 넘어 온 도시에 예수의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마이클 프로스트의 깊이 있는 말씀은 CGNTV <글로벌대담-예수바보행진>,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들’에서 희망을 보다

지역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섬기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다. 각박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들. CGNTV ‘CGN 투데이’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보도 <세상을 바꾸는 교회>(총 10편)를 통해 사람들이 직접 문을 두드리는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의 훈훈한 현장을 조명했다.



①편 _ 노숙인들에게 존중을...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 (2016년 1월 7일 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7년 간 노숙인들을 섬기며 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②편 _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월 14일 보도)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만 약 6만 명이지만 그들을 위한 다문화센터는 고작 10군데다. 다문화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도 한국 교회 전체에 1%도 못 미치고 있다.

③편 _ 이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경기도 안산 <서안산시온교회> (1월 15일 보도)
서안산교회는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미용 봉사, 생필품,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과 함께 한다. 또한 그들에게 기초 신학을 가르쳐 그들의 역 파송을 돕고 있다.

④편 _ 코이노니아의 꿈...

경기도 화성 <더불어숨동산교회> (1월 22일 보도)
도교육청과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함께 하는 세상의 가치를 전한다.

⑤편 _ 마을 운동 펼치는...

경기도 시흥 <꿈이 있는 교회> (1월 28일 보도)
사단법인 ‘참사랑참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미장원, 병원, 세탁소, 자원봉사단 등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인다. 이제는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고 있다.

⑥편 _ 독거노인을 위한...

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 <연탄교회> (2월 4일 보도)
서울시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백사마을. 연탄교회가 설립되면서 600여 가구 독거노인들의 삶과 마음에 온기를 찾고 있다.

⑦편 _ 어린이 양육에 앞장서는...

서울시 광진구 <신양교회> (2월 10일 보도)
신양교회는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10년 째 ‘신양 하늘 꿈’이라는 이름으로 아동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⑧편 _ ‘장애인의 버팀나무’...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임마누엘교회> (2월 18일 보도)
임마누엘 집은 의지할 곳 없는 장애인 60여 명이 어울려 사는 삶의 터전이다. 그들이 외부로 나가는 힘을 키우도록 돕는다.

⑨편 _ 새벽밥에 담은 사랑...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강남교회> (2월 25일 보도)
고시학원이 몰려 있는 노량진 고시촌. 실업난에 지친 청년들의 어깨를 다독이기 위해 15년 간 매일 그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준다.

⑩편 _ 교도소에서 복음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안디옥교회> (3월 3일 보도)
안디옥교회는 20년 가까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고 가족이 돼 주기도 한다.

* 위 내용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CGN투데이’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 산마루의 함께 하는 사회 선교

온누리교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와 서울 공덕동 산마루교회(담임 이주연 목사)가 노숙인 사역에 뜻을 합하는 모습이 CGNTV를 통해 방송됐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에게 말씀 선포의 자리를 내주었고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지난 10여 년간 힘써 온 노숙인 사역에 관한 목회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역 쪽방촌과 노숙인들을 돕고 있던 온누리교회는 그들을 위한 목욕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산마루교회가 기금을 모으며 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산마루교회는 10년 전부터 주일마다 노숙인 예배를 드렸다. 서울 부암동, 경기도 포천에 밭을 빌려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3년 전부터 연말마다 '노숙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해 그들을 위한 목욕·빨래시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왔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온누리교회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교회를 돕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고 이 일을 위해 온 성도들이 1월 17일 주일 예배에서 새해 첫 비전 헌금을 드렸다. 모인 헌금은 역대 비전 헌금 중 가장 많은 액수인 1억 5300만 원이었다.

그동안 산마루교회의 계획은 어렵게 진행돼왔다. 모금액에 비해 임대료 인상 정도가 늘 더 컸다. 하지만 이번 지원을 계기로 산마루교회의 계획은 실현가능한 일이 됐다.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수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의 기적"이라며 "이 사랑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이 CGNTV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를 탄 이후, 각 교회들은 국내외 곳곳에서 많은 격려의 연락을 받았다. 또 국내 우수 언론들의 이목을 끌며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의 규모, 교파, 교단을 뛰어넘는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소개됐다.



성탄절 세족식



노숙인 예배



예조 10년,
엄마 10년

CGNTV 어린이 큐티 프로그램 <예수님이 좋아요>의 무대 뒤엔 생각 밖의 인물들이 많다.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10여 년 넘게 <예조>를 있게 한 비법 같은 사람들이다. 20대가 됐을 청년들도 이제 막 TV 앞에 고개를 들고 앉은 꼬마들도 <예조>를 똑같이 추억할 수 있도록 해준 장본인들. 그중 한 사람이 베테랑 성우 겸 배우인 성병숙이다.

그녀는 1977년 TBC 성우로 데뷔한 이래, <젊음의 행진> <아침마당> 등 내로라하는 프로그램들의 MC로 활동을 시작한, 당시 얼굴이 알려진 몇 안 되는 성우 중 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로 기억되는 캐릭터인 뽀빠이의 '올리브', 코스비의 둘째 딸 '드니즈', 세일러문의 마녀 '에스메랄다', 이상한 나라의 풀의 '알미운 버섯들이'가 모두 그녀였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그녀가 흔히 강산도 변한다는 지난 10여 년 간 <예조>의 무대 뒤 좁은 스튜디오를 지킨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녀의 또 다른 10년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성병숙이 <예조>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녀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던 한 지점에서였다.

그녀는 IMF가 터진 90년대 말,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소위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었다. 더욱이 뇌졸중을 앓고 있던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딸이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당시 함께 어린이 뮤지컬을 했던 친구의 소개로 부득불 부천에 새 거처를 잡았다. 처음 교회의 문턱을 밟은 것도 그때였다. 성가대 지휘자였던 친구를 만나려면 교회로 찾아가야 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부천에서 방송국이 있던 여의도까지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 기도를 시작했다. "서울에 집 주세요. 그리고 30분 안에 다닐 수 있는 교회 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일주일 힘 얻고 살 수 있는 교회 주세요"라고.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여정으로 그녀는 신촌에 있는 교회를 거쳐 온누리교회까지 오게 됐다.

온누리교회는 "말씀도 더 배우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녀의 기도가 응답된 교회였다. 목사님 말씀은 매번 받아 적을 만큼 무척 좋았고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그리고 <예조>의 녹음작업도 시작하게 됐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뇌졸중 투병 중이었고 친정 어머니까지 치매가 왔던 시기였다. 또한 사춘기 외동딸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힘든 숙제인 때였다. 소위 종합선물세트 같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오직 신앙의 힘으로 그 난관들을 버틸 수 있었다.

"예조 녹음 너무 좋아요. 대본이 너무 좋아서 따로 대본을 챙겨 놓기도 하죠. 보는 아이들도 좋겠지만 말씀들이 녹음하는 우리들에게도 스며들어요. 벌써 제가 60대지만 이 작업은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작업인 것 같아요."**

그녀는 지난 10년 간 그저 일이 아닌 삶의 일부처럼 <예조>를 섬기면서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시나브로 배움을 얻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아이들이 어떤 불만이 있을 땐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말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러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는 지난 해 말 이제 30대가 된 그녀의 딸, 연기자 서송희와 연극 <내가 가장 예뻤을 때>로 한 무대에 섰다. 극중에서도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이 됐다. 두 사

람에게 그 무대는 처음 한 무대에 선, 일상이 연습이 된 특별한 작품이었지만, 성병숙에게 그 무대는 딸의 의지를 본 시간으로 더 각인됐다. 그녀의 딸 서송희는 지난 해 초 봉사차 갔던 도미니카에서 콜레라에 걸려 돌아왔다. 출연 당시 그녀의 딸은 병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묻고 출연을 결심했다. **"딸이 제 신앙의 증거"**라며 기도로 딸의 성장을 지켜봤던 그녀는 큰 무대를 잘 마친 딸이 더없이 대견했다.

<예조>에서 어린 누리를 연기하는 성병숙은 요즘 TV드라마 <아이가 다섯>에서 한창 75세 노인을 연기하고 있다. 노인 역이라 다소 우려됐지만 그녀는 이 역할을 하면서 유독 자신의 엄마가 많이 생각난다고 한다. 그녀는 영화 <해운대>를 시작으로 최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연애의 발견> <미생> 등 여러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엄마를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도제목은 **"엄마 되게 해주세요"**다. "제 딸이 제게 엄마가 이제야 엄마 같다고 해요. 제가 늘 부족한 엄마였던 거죠. 엄마 되게 해주시길 기도해요. 우리 딸에게 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현장이나 일하는 곳, 봉사하는 곳에서 진정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인도 선교의 비전을 나누다

만남

CGNTV는 선교지 곳곳 친구들이 있다. 그들은 부지중에 CGNTV를 접한 후 그저 함께 웃고 울다 시나브로 CGNTV 시청이 일상이 된 이들이다. 2016년 CGNTV 직원 예배의 말씀 강단에 선 이도 바로 그들 중 한 명인 인도 임권동 선교사다.

임 선교사는 10년 전 CGNTV 안테나를 처음 후원 받았다. 인도에서 사역한지 10년 고개를 넘어선 때였다. 열대 기후를 견디며 힌두, 이슬람 신도 수가 90%를 넘는 땅에서 소명 하나로 복음을 전하던 때, 고국에서 찾아 온 방송은 그의 심령과 일상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방송을 매일 시청했다.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고국의 주일 예배는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됐다. 특히 투병 중에도 주일예배 단상에 섰던 고(故) 하용조 목사의 모습은 지금도 그를 북돋아주는 기억이다. 손만 뻗으면 접할 수 있게 된 세미나와 강의 등도 그에게 풍성한 영적 양분을 주었다.

어느 덧 그렇게 10년. 지난 해 CGNTV 리서치 팀이 인도 사역을 위해 도움을 얻고자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팀원들을 맞아주었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1. 사역중인 고아원에서 성장한 청년들, 홈커밍데이
2. 임 선교사 가족,
3. 매월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나눔.
4. 매년 진행되는 밀알심장재단 수술 사역 관련 행사. 사진은 정부관계자, 의사, 사역자들



인도

임 선교사는 23년차 인도 선교사다. 1992년 선교 현장 탐방 차 인도 하이데라바드와 오리사를 방문한 후 지금까지 인도 복음화를 위해 뛰고 있다. 부르심의 징표처럼 첫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아내 박순옥 선교사를 만나 좀 더 든든하게 사역을 시작했고, 대학생이 된 세현, 준현 두 아들도 봤다.

그는 현재 일곱 가정의 한국 선교사들과 팀을 이뤄 사역중이다.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을 위한, 현지인의 선교”에 목표를 두고 있는 그들은 인도 중부지역을 위한 제자 훈련, 목회자 훈련, 교회개척, 고아원 운영, 농업사역, 밀알심장재단을 통한 심장병 환자 수술 사역 등에 힘쓰고 있다.



12억이 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도 도마부터 시작된 선교의 역사는 긴 나라다. 임 선교사는 그런 의미에서 “인도는 선교의 대상이자 선교의 주체인 나라”라고 말한다. 이에 그와 또 다른 인도 선교사들은 현지인을 통해 토착적이고 자생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인도 선교의 길을 찾고 있다.

최근 희망적인 열매들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수적인 부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갈보리탐플교회는 개척 10년 만에 13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 이들은 자국민 선교사들을 양성해 인도 내 다른 지역과 문화권으로 파송하고 있다. 또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가정교회 개척 운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비전

임 선교사의 말대로 인도는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CGNTV 또한 오래 전부터 인도 지사 개척을 준비 중이다. 임 선교사에 따르면, 인도 선교를 위한 방송 사역은 매우 고무적이다. 인도는 이미 영화와 음악 등을 좋아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TV 시청도 무척 좋아해 가난한 사람들도 집에 TV 한 대는 꼭 있을 만큼 TV 시청을 즐기고 있다. 케이블을 통해 여러 개의 크리스천 방송들이 방송되고 있지만 양질의 콘텐츠는 빈약한 상태다.

이에 임 선교사는 CGNTV의 행보를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현지 조사도 적극 협력해주고, 인도 선교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제작팀에게 식사도 섬겨주며 3일간의 여정을 함께 해주었다. 직원 예배 말씀도 선뜻 응해준 그는 “그동안 CGNTV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인도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이머시 인디아

[부제: 브라만 전도사 판카즈의 다시 만난 인도]

■ 방송시간 : 4월 3일(주일) 오전 10시 40분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나라, 인구 12억이 넘는 땅 인도. 아시아의 이 큰 나라에선 지금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까. CGNTV는 개국 11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자이머시 인디아>를 통해 인도 선교의 현주소를 카메라에 담았다. 인도인 전도사 판카즈 카필라가 인도 전역 7개 도시를 도는 20일 간의 이 여정에 동승했다. 영어, 한국어, 힌디, 지역 언어 등에 두루 능통한 판카즈는 이번 여정에서 통역자, 위로자, 멘토로 1인 3역을 했다.

판카즈는 이주 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듣고 전도사가 된 인물로, 다시 본국의 선교사로 돌아가게 될 대표적인 역 파송 선교사다. 특히 그는 유례없이 인도 상위 계급인 브라만으로서 전도사가 됐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꼭 한번 인도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는 그는 이번 여정을 계기로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인도를 경험했다.

다큐 팀들이 버스, 기차, 비행기를 이용해 도달한 곳들은 인도의 첸나이, 벵갈로, 하이데라바드, 바라나

시, 비하르, 콜카타, 델리 7개 도시다. 12명의 선교사와 현지 선교단체, 교회들을 방문했고 인도 교회의 부흥과 핍박의 현장 등을 담았다. 그들은 인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른 길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인도는 생각 밖에 나라였다. 훨씬 많은 신들과 우상이 삶 속에 침투해 있었고, 반면 크리스천들은 복음주의적 메시지에 갈급해 있었다.

판카즈는 복음을 들고 다시 선 바라나시의 갠지스강이 즐거운 추억만 있던 어린 시절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 땅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다. 그에 따르면, 인도는 우상 신만 3억이 넘는다. 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저 또 하나의 종교를 소개하는 꼴이 되기 쉽다. 또한 계급 사회인 인도에서 기독교는 낮은 계급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것은 사회적 차별을 감내해야 할 쉽지 않은 일이다.

높은 계급 사람들은 낮은 계급의 집으로 가지 않는데 브라만인 판카즈는 이번 여정을 통해 전도자로서 첫

발을 댄 셈이 됐다. 그의 개인적인 일화 중, 그가 가난한 모자(母子)를 집에 들여와 밥을 대접하자 그의 어머니가 갠지스 강 물을 줄 테니 당장 씻고 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이번 여정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떠올렸다. 손으로 밥을 먹기도 했다. 흔히 인도인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태어나서 줄곧 숟가락을 사용해왔다. 또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그렇다. 다만 그는 “전도자라면 만나는 대상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도는 강력한 힌두와 무슬림, 우상의 나라이지만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간직한 나라다. 제자 도마가 복음을 전한 흔적도 있다. 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파

송되는 나라는 바로 자신들의 나라다. 남쪽 지역 선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복음화율이 낮은 북쪽으로 향한다. 이에 한인 선교사들은 현지인을 통한 현지인 선교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이번 촬영 길에 오르기 전, 모든 지역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인도에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지 궁금했다. 또 한 번도 인도의 교회에 나가거나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어서 더욱 기대됐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인도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현지인 목회자 분들을 통해 참된 헌신을 배웠다”며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고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브라만 전도사 판카즈의 다시 만난 인도, 4월 3일(주일) 다큐멘터리 <자이머시 인디아>를 통해 만날 수 있다.

※ 자이머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 CGNTV 신규 세미나

※ 프로그램들은 CGNTV홈페이지(www.cgntv.net)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좌표

나침반 바이블

■ 방송일시: 매주 목, 금 오전 11시 (인터넷 업데이트 금, 토 오후 2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좌표. <나침반 바이블>은 탁월한 국내 목회자들의 깊이 있는 성경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신앙과 삶의 방향을 짚어본다.



목요일 강의 - 조병호 목사 편
주제: 통통성경 이야기
(총 15강 2016년 3월 3일 ~ 6월 9일)



금요일 강의 - 이한영 교수 편
주제: 광야 이야기
(총 12강 2016년 4월 1일 ~ 6월 17일)

자녀 문제의 성경적 해법

최은영 교수의 '성장'

■ 방송일시: 4월 21일부터 매주(목) 오후 8시 10분 방영 예정

아이들의 분노, 불안, 우울, 중독.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부모들을 위해 교육전문가 최은영 교수(교육학박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임상담원)가 성경적 해법을 제시한다.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청소년기인 자녀와 부모가 서로 이해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이계호 교수의 이유 있는 먹거리 운동



▲ 이계호 교수 (충남대 화학과) - 태초먹거리 학교 설립자

과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픈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의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10세 이하의 아토피 환자가 35%를 넘고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 숫자가 급증했다.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었지만 대장암 발병율이 자그마치 세계 1위다.

분석화학자인 이계호 교수는 2009년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잃은 후 슬픔을 딛고 본격적으로 암 환우의 생활습관과 먹거리를 연구, 조사해 선한 양심으로 태초 먹거리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가 이 운동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점은 '기본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엔 영과 함께 육체를 주셨다. 영적으로 불순중하면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듯이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의 몸을 분석해보면 몸속에 있는 액체의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같고, 살과 뼈는 토양과 화학적 성분이 같다. 곧 인

간은 걸어 다니는 흙집인 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인간의 몸을 장막집,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다.

흙으로 돼 있는 인간의 몸은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이 식물이다. 식물은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려 흙속에 있는 영양을 끌어올려 단맛도 내고, 향도 내 먹기 좋게 자란다.

하지만 근래 식품 산업이 대량 생산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먹거리들이 점차 상업성, 편리성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 경제성을 고려해 보양식하고 먹음직하게 만드는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생산된 1차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병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바로 면역시스템이다. 면역은 완벽하다.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다. 심지어 암도 면역으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면역시스템은 잘못된 먹거리, 환경, 생활습관으로 인해 파괴되고 이것이 곧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먹거리, 환경, 생활습관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기본이 회복되는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해 후손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그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는가.

※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에 관한 내용은 총 9강으로 구성된 동일 제목의 'CGNTV 세미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길 위에서”

다큐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 그 이후

CGNTV는 지난 1월 10일 다큐멘터리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를 방송했다. 이는 아랍 CGNTV PD와 중동 사역자 2명이 소위 '난민 하이웨이'라 불리는 유럽행 중동 난민들의 이주 경로를 직접 동행 취재한 다큐멘터리다.





1. 슬로베니아, 기약 없는 희망의 땅을 향한 만원난민열차.
2. 레스보스 섬, 난민들의 행렬.
3. 레스보스 섬은 망국자들이 바다 건너 처음 도착하는 땅이다.
4. 레스보스 섬 해변에는 난민들이 버린 수 천여 개의 구명조끼가 수북하다.
5. 터키 이즈미르, 유럽행 말입국 난민들에게 구명조끼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다.
6. 터키 이즈미르, 자녀들을 찬 바닥에 재워야하는 난민들의 기약 없는 노숙.



중동 사역자인 제작진 세 사람은 다큐 제작에 앞서 그저 그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고 싶다는 동기가 강했다. 이미 난민들에게 카메라만 들이대는, 제 삼자일 수 없는 시작이었다.

그들의 경로는 터키에서 시작해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까지 총 8개국 약 3,000km 거리였다. 그들은 때 여정마다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돌아보고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 손잡고 기도해주었다.

또 난민들의 실상을 'CGN투데이' 기획보도로 전했다. 타이틀은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였다. 새 땅을 향해 선교의 난공불락인 무슬림 국기를 나오는 그들의 행렬은 마치 출애굽(엑소더스)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크리스천기자협회가 선정한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난민 하이웨이에는 시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아프간, 이라크, 이란인을 포함한 10여 개의 중동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을 낳은 상태고 그 수가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6000만여 명에 달한다.

경로에 있는 8개의 나라 중 다큐가 말하는 가장 충격적인 곳은 그리스 레스보스 섬이었다. 그곳은 터키를 출발한 난민들이 작은 고무보트 하나에 의지해 에게해를 건너 처음 도착하는 곳이다. 지난해만 약 70만 명이 '죽음의 항해' 라고 불리는 이 길을 거쳤고, 그 중 512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인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 도 그 중 한 명이다.

관광지로 유명했던 그곳은 이제 난민들이 버린 수만의 구명조끼와 고무 튜브가 고통의 기억인 듯 수북이 버려져 있다. 해변에 도착하는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서로 끌어안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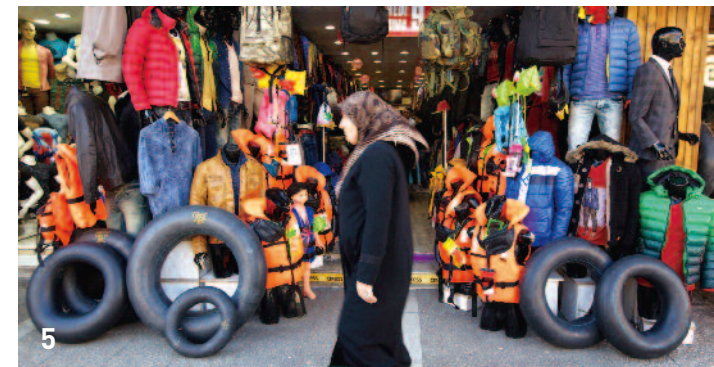
제작진은 “만일 내가 그 난민 중 한 명이었던면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을 그 보트에 태울 수 있었을까? 우리 모두 한번 해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은 처음부터 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전쟁과 폭력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이들”이라며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난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다큐멘터리는 지난 2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중동-유럽 이주민 포럼' 에서도 상영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유럽 내 한인교회 등이 참석해 난민들에게 어떻게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갈지 4박 5일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간 중 곧 바로 EMN(Euro MENA Network) 선교 네트워크를 조직해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 속한 지역별로 은사와 비전에 따라 이주민들을 돕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도 소통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동행 취재한 두 중동의 사역자들도 최근 사역지를 중동에서 난민 하이웨이의 한 거점인 오스트리아로 옮겼다. 그들은 생활 기반은 물론 사역 현장도 옮기고 새 언어도 배워야 하는 실정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무슬림을 섬길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앞에 순종했다.

현재 프랑스는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무슬림 인구가 10%가 넘고 모스크의 숫자도 2300여 개에 달한다. 프랑스 이슬람 협회에서는 2년 내에 두 배가 넘는 모스크를 더 짓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닌 선교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는 이 길이 생긴 이 시대의 유럽은 이제 '이미 희어진 추수터' 라고 전하고 있다.



국내뉴스

CGNTV 개국 11주년

CGNTV는 개국 11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일 CGNTV 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리고 방송 선교의 비전을 나눴다. 특히 2016년은 '사회선교', '통일한국' 분야를 보다 강화해 더욱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에 CGNTV는 오는 6월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룩한 바보들>과 크리스천 탈북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보는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4월 3일(주일)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는 개국 11주년 기념 개국행사가 진행된다. 통합데스크를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CGNTV를 소개하고, 합성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아외 크로마 스튜디오'나 말씀 캘리그라피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입사원교육 '삼공편치' 개최

CGNTV는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여주 회복의 집에서 '삼공편치'를 주제로 한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했다. '삼공편치'는 CGNTV의 세 가지 핵심가치인 '공유, 공감, 공생'을 이루자는 뜻. 신입사원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GNTV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회사 관련 문제를 퀴즈로 풀어보는 골든벨, 부서별 업무 소개, 기도회 및 세족식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이다정 신입사원은 "1박 2일을 통해 CGNTV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로의료재단 건강검진 서비스

하나로의료재단(회장 이철)은 지난 2월 29일 CGNTV와 업무협력을 약속하고 3월 한 달 동안 CGNTV 임직원들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는 각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건강한 방송 사역의 시작이라는 양측의 생각에서 추진됐다. 하나로의료재단 측은 "CGNTV 사역을 돕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부담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GNTV는 향후 직원들의 건강검진은 물론 다양한 정책들을 통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복지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해외 유명 사역단체 방문

해외 유명 사역단체들이 한국 내 사역 협력을 위해 CGNTV를 방문했다. 지난 1월 27일 대표들을 중심으로 방문한 미국 성경박물관은 CGNTV와 한국 내 순회전시와 성경교육 사업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성경박물관은 율법 두루마리부터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성경 등 희귀 인쇄 성경 4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2월 29일에는 미국 크리스천 방송 네트워크 CBN 동아시아 대표가 성경의 이야기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슈퍼북' 시리즈 한국 론칭을 위해 방문했다. CGNTV와 콘텐츠 교류 중인 존 파이퍼 목사의 'Desiring God Ministry'의 대표와 'Joyce Meyer Ministry' 인도 지부장도 각각 1월 29일, 2월 5일 방문해 향후 콘텐츠 방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드림온 안테나 1만 대 돌파

드림온 캠페인 안테나 후원이 지난해 말 1만 대를 돌파했다. 드림온은 전 세계 2만 7000여 한인 선교사들 및 국내 미자립교회들을 대상으로 CGNTV를 통해 영성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안테나 후원 캠페인이다. 2005년 3월에 시작해 현재 4차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총 82개국에 1만 94대의 안테나를 지원했다. 지원받은 각 선교사들은 365일 24시간 CGN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드림온 캠페인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내 '후원 페이지'를 통해 '선교지 지정' 혹은 '미지정'의 형태로 동참할 수 있다(문의 02-796-2243).



제4기 모니터단 발족

CGNTV 제4기 모니터단이 발족됐다. 일반 모니터단 17명, 선교사 모니터단 6명, 총 23명이 선발된 이번 4기는 지난 3월 24일 CGNTV 본사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사 및 제작 스튜디오 등을 탐방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각 모니터단들은 앞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CGNTV의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촬영현장 방문 및 다양한 정기모임 등을 통해 CGNTV 프로그램 개선에 협력하게 된다.



해외뉴스

미주 CGNTV _ 오병이어 캠페인

자체 후원회로 운영되는 미주 CGNTV가 2016년 후원 확대 프로젝트 '오병이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주 후원자들이 CGNTV를 직접 주변에 알리고 새로운 후원자를 이어주는 활동. 미주 CGNTV는 본 캠페인을 통해 CGNTV 사역을 위한 보다 많은 손길들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의 첫 주자는 LA에 거주하는 조영신 후원자(나성영락 교회)가 나섰다. 조영신 후원자는 2009년 우연히 CGNTV 설교 방송을 보고 감동을 받아 CGNTV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타국에서 지내다 보니 CGNTV는 전 세계인들과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인 것 같다"며 "앞으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CGNTV _ 일본 교회,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일본 CGNTV는 2016년 개국 10주년을 맞아, 봄 개편 신규 프로그램인 특별좌담회 <교회>를 선보인다. "이어지는(つながる), 깊어지는(ふかまる), 넓어지는(ひろがる) 교회"를 주제로 한 이번 좌담회는 미네노 타츠히로(요도바시 교회), 호리우치 아키라(그레이스 선교회) 등 일본에서 다년 간 사역해 온 일본인 목회자 5명을 초청해 일본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비전 등을 이야기한다. 총 2부로, 1부는 <이어지는, 깊어지는 교회 - 일치와 사명>, 2부는 <넓어지는 교회 - 세상의 빛으로 땅 끝까지>. 방송 일시는 각각 4월 9, 16일(토) 오후 7시. 이와 함께 일본 CGNTV는 대학생, 직장인 등 일본 차세대 젊은 크리스천들을 위한 공개 세미나 <희망의 등불>도 선보인다. 경영인, 목회자, 선교사, 예술인,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 크리스천 선배들이 차세대 크리스천들을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만 CGNTV _ 사무실 이전 새 출발, 교육 콘텐츠 강화

대만 CGNTV는 지난 1월 20일 타이베이에서 신베이시로 자체 스튜디오를 갖춰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제작 자문위원회 및 복음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6일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고 다시 한 번 중화권 선교 교육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또 대만 CGNTV는 4월 봄 개편을 맞아 다양한 신학강의 및 세미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중화권 유명 신학 서적 출판사인 '위저우광'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 공급할 계획이다.



아랍 CGNTV _ 난민 다큐, 중동 난민 사역에 불씨

아랍 CGNTV가 본사 및 중동 선교사들과 협력 제작한 다큐멘터리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가 지난 1월 방송된 이후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며 난민 사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영상은 지난 2월 15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4박 5일 동안 개최된 '중동-유럽 이주민 포럼'에서 상영돼 이라크, 시리아 난민 현황 파악과 대책 모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주일 정규 예배 시간 총 4회에 걸쳐 영상을 관람한 후 이스라엘로 예정돼 있던 성지순례를 그리스 난민 사역으로 변경했다. 그들은 지난 3월 26일부터 약 일주일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다. 일본의 한 성도는 다큐 감상 후 난민 사역을 위한 후원금 100만 엔을 CGNTV로 보내왔고, CGNTV는 올 상반기 한국교회의 난민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아랍 CGNTV는 지난 3월 4일 창립 4주년을 맞아 동역자 그룹들을 초청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리고 중동 선교 사역에 더욱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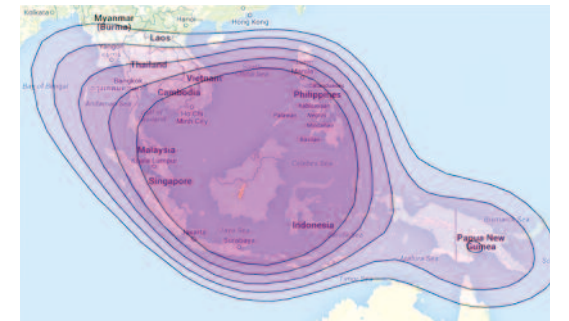
태국 CGNTV _ 섬기는 방송 실천, 프로그램 <탐디나>

태국 CGNTV가 신규 프로그램 <탐디나(좋은 일을 해요)>를 통해 태국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태국 C.C.T 교단과 협력 제작 중인 <탐디나>는 태국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리얼리티 NGO 프로그램. 1편은 출연자들이 쓰레기로 가득했던 C.C.T 총회 건물 뒤편을 치우고 그 자리에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들을 담았다. 인근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 방콕 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한 1편은 냄새나는 골목을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화사한 곳으로 변화시켰다. 총 20편으로 제작되는 <탐디나>는 이후에도 SNS를 통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며 태국 사회의 소외된 곳들을 꾸준히 찾아갈 계획이다. <탐디나>는 올 하반기 태국 내 공중파를 통해서도 방송된다. 방송 이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CGNTV _ 기독교 채널 샤인TV서 방송 예정

인도네시아 CGNTV는 2016년 인도네시아 기독교 채널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보다 사역을 위한 기틀을 잡아간다. 기존에 인도비전 라이프 채널을 통해 일일 1시간씩 방송됐던 프로그램이 기독교 채널인 샤인TV에서도 선보일 예정. 샤인TV는 무료위성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24시간 복음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기독교 위성채널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CGNTV는 한인선교사협의회, 한인목회자협의회, 현지인 방송채널 등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내 좋은 기독교단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및 위성신학교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다.



CGN TV
편성
프로그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10 미니콘서트 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10: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광교회) 10: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07:0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00 [말씀]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영어자막) 08: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상회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1:30 햇볕회 강좌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6:50 나침반 바이블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민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지구촌 반상회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2:3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지구촌 반상회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신학자들의 이슈&토크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희 목사(뉴욕IN2) 13: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칩 잉그램의 믿음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 성경, 체질, 건강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지구촌 반상회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일본 아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레위기>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지구촌 반상회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광교회) 23:50 페리 노블의 결혼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9:3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20:10 햇볕회 강좌 21:00 하용조 목사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영어자막)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웰의 생각을 지키라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50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라준석 목사 (시드니새순교회) 20:10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 성경, 체질, 건강 21: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3:50 존 파이프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대린 패트릭의 요나서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영어자막) 19:0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0:00 지구촌 반상회 20: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1:20 반갑습니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23: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00:20 생명의 삶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1. 정기후원

- 1) 자동이체
- 2)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

- 1) 계좌이체(or 무통장입금) : **[후원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예금주: (재)은누리선교재단)**
- 2) 신용카드 결제
- 3) 휴대폰 결제
- 4) ARS 전화후원: 060-700-1660 (전화 한 통화에 5천원)

3. 후원 신청 방법

- 1) 전화로 신청하기 ☎ **02-796-2243**
-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 3)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m.cgntv.net
상단 후원하기 클릭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득환,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춘수,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승, 박성호, 박영한, 박은영,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익준, 유이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원식, 윤호석,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길수, 이남식, 이밖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정심, 정광택, 정운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백진,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은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S 글로벌**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M**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 페이스북을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

※ 기타시청문의 02-796-9800

약할 때 강함 되는 방송

- 이남식 장로 (CGNTV 운영위원, 크리스천CEO포럼 회장)

CGNTV는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마음을 품고 지난 10년을 달려왔다. 위성, 케이블, IPTV,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12개 언어로 24시간 방영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방송시스템으로 도약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십자가의 신비처럼, CGNTV의 지난 10년 사역은 열악한 환경 속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신 과정이었다. CGNTV는 방송국의 가장 큰 재정 공급원인 광고도 없이 수많은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 직원들의 열정만으로 여기까지 이어져왔다.

어느 하나 좋은 조건이 없었지만 그 약함을 주님께서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며, 이 방송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지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를 전하는 강한 방송으로 세워 주셨다.

이제 CGNTV는 다가올 10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방송'이 될 것을 다짐하고 섰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권을 내세운 동성애 문제, 빈부격차, 일자리의 감소, 기후변화, 환경오염, 전 지구적인 전염병 등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얼룩진 시대의 장벽들이 버티고 있을 때, 더 큰 도전 앞에 직면한 것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의 그 신비가 더욱 임하실 때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CGNTV가 더욱 시대의 약이 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본다.

